

독도의 진실-9

-울릉도 쟁계-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1. 울릉도 쟁계의 시작

1692년 돛토리번 어부들의 배가 울릉도로 접근했을 때 섬 안에서 조선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안용복을 비롯해 약 40명의 조선어부들이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이것을 보고 배는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다음해 1693년도 같은 상황이었다. 2년 연속으로 울릉도로 상륙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상륙해 조선 어부들과 논쟁을 벌였고 조선인들 중 안용복과 박어둔 2명을 납치해 돛토리번 호키국(伯耆国) 요나고(米子)항으로 되돌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약3년간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를 둘러싼 분쟁에 돌입했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울릉도 쟁계(爭界)'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죽도) 일건(一件)'이라고 한다.

2. 울릉도 쟁계와 대마도

(1) 울릉도를 노린 대마도

안용복과 박어둔은 연행된 돛토리번에서 의외로 좋은 대접을 받았다. 돛토리번이 울릉도 문제로 조일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일본의 관백(장군)에게 울릉도가 조선영토라는 서계(書契 : 외교문서)

를 받았다고 후에 비변사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대마도 관리들에게 박대를 당해 서계를 그들에게 뺏겼다고 진술했다.

(2) 대마도 관리 굴진중과 남인정권

대마도는 안용복 등을 조선에 송환하면서 대마도 고위 관리인 굴진중(橘眞重)을 부산왜관으로 보냈다. 굴진중은 '죽도(울릉도)는 일본영토니 조선어부들이 죽도로 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서한을 조선왕조로 보냈다.

이에 대해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남인들 '울릉도는 오래 전에 버린 땅과 마찬가지로 버린 땅을 갖다가 일본과 싸우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잘못된 답장을 일본 측에 보내도록 임금 숙종에게 건의했다.

그렇게 작성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울릉도는 조선땅이지만 죽도는 일본땅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인들이 죽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와 죽도는 같은 섬의 다른 두 이름인데 남인들은 말이 안 되는 문서로 일본 측 공세를 피하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측 서계를 받은 굴진중은 '죽도는 일본땅'이라는 부분을 보고 기뻐했으나 '울릉도는 조선땅'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울릉도는 조선땅이라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서계를 조선왕조로 돌려보냈다.

조선 측에서 굴진중에게 보낸 서계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폐방(弊邦: 조선)에서 어민을 금지·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나라(조선)의 울릉도일지라도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바깥의 섬으로 나가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다케시마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를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후략)

서계(書契: 외교문서)에 다만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중략) 도주(島主)는 반드시 울릉(鬱陵)이란 두 글자를 깎아 버리라고 했으니 (후략)

3. 장희빈 폐비사건과 서인정권의 등장

그런데 이때쯤 숙종임금의 중전 자리에 있던 장희빈 폐비사건이 일어나 그녀를 등에 업고 권좌에 오른 남인세력이 몰락했다. 이것을 계기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 영의정으로 남구만(南九萬)이 임명되었다.

남구만은 굴진중이 돌려보낸 서계를 보고 남인들이 벌인 저질 외교에 대해 분노했다. 남구만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일본명이니 다케시마는 울릉도의 이명(異名)에 불과함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울릉도로 일본인들이 도항해 오기를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서계를 굴진중에게 건넸다.



영의정 남구만

4. 일본 에도막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다

쓰시마번으로부터 조선의 울릉도에 대한 태도를 보고받은 에도막부는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돗토리번은 다케시마(울릉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케시마(울릉도)는 떨어져 있는 섬이므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호키수(伯耆守 : 돗토리번 속의 호키국의 장)가 지배하는 땅이 아닙니다.’

(1693년 5월22일,『이케다 가<池田家>문서』)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因幡 : 돗토리번의 이나바 국), 호키(伯耆) 부속이 아닙니다.’

(1695년12월24일 『이케다가 문서』)

1696년 1월25일, 돗토리번(鳥取藩)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본 내 지방도 독도를 영유하지 않는다고 에도막부에 보고했다.

마쓰시마(독도)는 두 나라(이나바국과 호키국) 소속이 아닙니다. 다케시마(울릉도)에 도해하는 길에 있는 섬입니다.

마쓰시마는 어떤 나라(=일본의 각 지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1696.1.25. 『다케시마 문서(竹島之書附)』속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覚書)」

: 돗토리<鳥取>박물관 소장)

고서를 작성하여 메이지(明治)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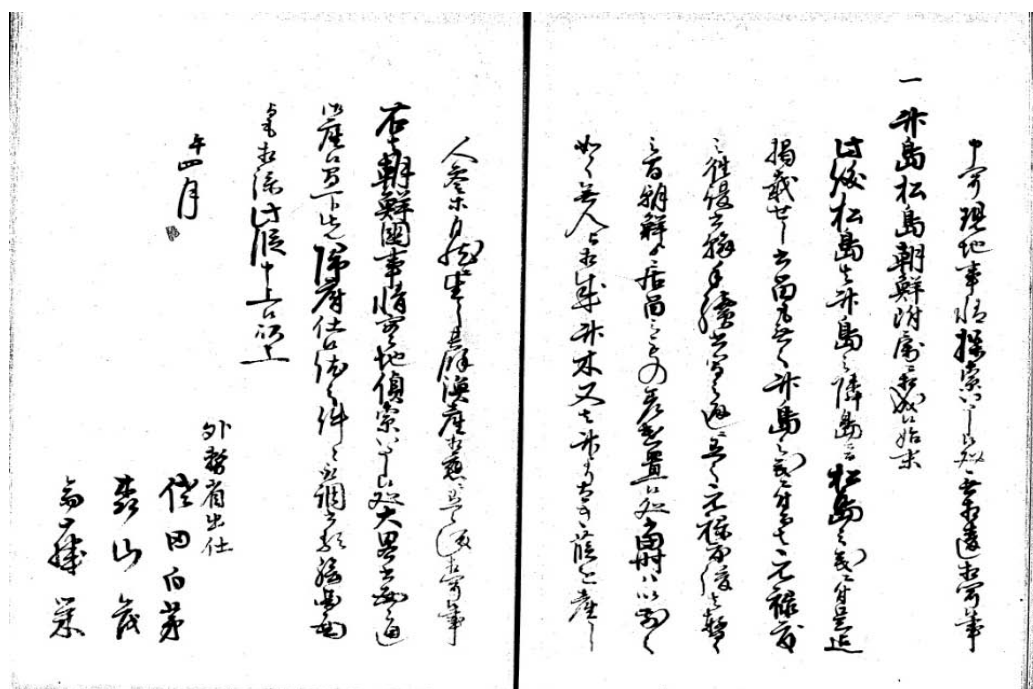
1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전말

이 건은 마쓰시마(독도)는 다케시마(울릉도) 옆에 있는 섬인데 마쓰시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게재된 공문서가 없다.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禄)시대(1688-1704) 이후에는 잠시 동안 조선에서 체류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놓았으나 (이후) 이전과 같은 무인도가 되었다.

(울릉도에서는) 대나무 혹은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자생으로 자란다. 그 외에 어업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 (후략)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 交際始末 內探書)』 (1870,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

이 문서의 원본은 다음과 같다.



즉 17세기말 일본은 마쓰시마(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울릉도와 함께 조선영토라고 1870년 외무성보고서를 통해 재확인시켜 주었다. 일본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면서 현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